

95.7.2

여성교육기회 확대불구 지위향상 미미

여성개발원 김재인씨 논문, 해방이후 여성교육-지위 관계 첫 조명

여학생비율 31년 18.6%→93년 45.7%···여성임원4.1% 부장1.9%뿐

김미경 기자

광복 50년동안 여성 교육기회는 양적으로 크게 확산됐지만 여성지위향상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는 4일 열릴 '광복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와 전망' 학술세미나(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에서 발표될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수석연구원의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변화' 논문은 광복 50년 여성교육 발전사와 여성지위와의 관계를 짚어보는 첫 시도여서 주목된다.

해방 당시 성별에 따른 교육통계가 전무해 해방전인 1931년과 해방후를 비교한 이번 연구결과 전체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31년 18.6%에서 93년 45.7%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당시 여학생 총수가 전체 여자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했던 반면, 93년에는 22.1%를 차지해 거의 20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한 31년 당시 10만9천3백14명이라는 여학생 숫자도 현재의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보통학교' 여학생 숫자가 8만

9천6백58명으로 82%를 차지하고 고등보통학교나 전문학교 등에서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93년 각급학교별 여학생비율이 국민학교의 경우 48.2%, 중학교 48.5%, 고등학교 47%, 대학교 32.7%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평균교육연수도 60년에는 남자가 4.78년인데 비해 여자는 2.92년으로 남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70년에는 여자 4.72년 남자 6.86년, 80년에는 여자 6.63년 남자 8.67년, 90년에는 여자 8.58년 남자 10.55년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재인 수석연구원은 "광복후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여성의 교육기회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해왔다"면서 "하지만 교육목적이 성차별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대학 학과선택에서 남녀분업적 역할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취업이나 여성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여자대학생은 대학 학과선택시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학과보다는 50% 이상이 어문학이나 인문학·

예술학 등에 몰려있으며, 특히 공학분야의 경우 65년 0.9%에서 94년 5.8%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여학생들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은 형편이다.

결국 9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7.2%에 이르지만 여성이 임원의 4.1%, 부장의 1.9%, 과장의 2.4%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등 하위직에 머물러있는 현상은 교육기회의 확산이 여성에게 사회화된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직업의식교육 △직업준비교육 △공과대학·자연계열·특수대학으로의 여성입학기회 부여 특별조치 등 여성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낮12시30분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에는 권영자 전정부(제2)장관의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기조강연과 '해방이후 사무직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심리기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광복 50년동안 여자 대학생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76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해 검정치마와 흰브라우스를 입고 등교한 이화여대생들의 모습.